

담양 생활인구 전남 인구감소지역 중 1위

지난해 4분기 39만 8258명
체류인구, 등록인구의 7.7배
전방위적 인구정책 등 성과

담양군의 생활인구가 도내 16개 인구감소지역 중 1위를 기록했다.

담양군에 따르면 통계청과 행정안전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 결과 담양군의 평균 생활인구는 39만 8258명이다. 이 중 체류인구는 35만 2545명, 주민등록과 외국인등록을 한 등록인구는 4만 5712명으로 나타났다. 앞선 2분기와 3분기에 이은 3분기 연속 도내 1위 기록이다.

2024년 12월 기준 타 시도 거주자 비중은 83.7%로 인구감소지역 전체 평균 66.5%보다 높다.

3개월 내 재방문을 역시 45.5%로 인구감소지역 전체 재방문률 43.2%보다 높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22.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분포해 세대 구분 없이 다양한 방문 수요가 있음을 보여줬다.

담양군은 9월 정식 개원을 앞둔 국립정원문화원을 비롯해 군민생활체육공원·반다비체육센터·파크골프장 등의 체육시설과 남부권 광역관광 야간 콘텐츠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생활인구 유입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담양군 생활인구가 전남 지역 16개 인구감소지역 중 1위를 기록했다. 죽녹원을 찾은 관광객 인파.

? 생활인구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통근, 통학, 관광 등의 목적으로 하루 3시간 이상 머문 날이 월 1일 이상인 '체류인구'와 주민등록인구, 외국인등록인구, 국내거소신고자인 '등록인구'를 더한 지표다.

이와 함께 생활인구 확대와 정주 유도를 위해 2022년부터 총 269억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

금을 활용해 34개 사업을 추진 또는 완료했다. 출생기본수당 등 생애주기 맞춤형 인구정책 77개 사업에도 21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운영 중이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도내 생활인구 1위라는 성과에 걸맞게 체류에서 정주로 이어질 수 있는 맞춤형 콘텐츠와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면서 "지역의 활력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전방위적인 인구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타당성 검증·부지 매입까지 마쳤는데 장흥군 신청사 건립 재정 악화로 보류

지방교부세 감액 등으로 재정난

예초 2026년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던 장흥군 신청사 건립사업이 어려운 재정을 이유로 잠정 보류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장흥군은 총 1040여억 원이 소요되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군비를 출연해 매년 50억원에서 100억원씩 2023년까지 사업비의 절반이 넘는 604억원을 기금으로 적립했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윤석열 정부의 대폭적인 지방교부세 감액과 자체 세수재원 부족 등으로 군 재정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청사신축 출연금을 한 톨도 적립하지 못했다.

이처럼 장흥군 신청사 건립사업이 난관에 부딪친 데는 도내 대부분 지자체가 민생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장흥군은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악화한 상황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군의회까지 나서 신청사 건립 사업 무용론을 제기하자 김성 장흥군수가 내년 지방선거와 재정 상황을 고려해 신청사 건립을 잠정 보류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장흥군 현 청사는 지난 1977년 건립돼 50년이

다 됐으며, D등급 판정을 받은 낡은 건물이다. 장흥군 신청사 건립 추진은 지난 2016년 12월 '청사 신축 건립기금 조성 조례제정'을 기점으로 시작했다. 신청사 건립사업은 2018년에 협정사 정밀안 전진단(D등급), 2019년 청사정비계획 수립용역, 2019년 10월~2020년 6월 설문조사 및 공청회 등 군민 의견수렴, 2022년 1월 공유재산 심의안 의결, 2022년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구성, 2023년 신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착수, 2024년 5월 말에는 신청사 건물매지 계획(안)이 확정되면서 탄력을 받았다.

2단계 절차로 지난 4월에 행정안전부(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신축에 따른 타당성 검증을 마쳤으며, 의회 청사가 들어서는 장흥군 산림조합 부지를 포함한 3900㎡(1200평)에 대한 매입과 정까지 끝났다. 또 신청사 건립에 맞춰 국도 23호선에서 군 신청사로 이어지는 폭 20m(4차선)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부지 매입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전남 지역 22개 지자체 중 순천시, 곡성군, 무안군이 신청사 공사 중에 있다. 인근 강진군 역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나주시 산포면 공중목욕장.

나주시, 공중목욕장 무료 이용자 확대

기초수급자에 장애인·유공자까지
찜질방 시설 개선, 안전 점검 강화

나주시가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공중 목욕장·찜질방 무료 이용 대상자를 대폭 확대했다.

나주시는 지난 4월부터 공중 목욕장 무료 이용 대상자를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에서 운영 중인 공중 목욕장과 찜질방은 모두 12곳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어린이, 65세 이상 어르신은 1000원, 일반인은 2000원의 요금으로 공중 목욕장을 이용할 수 있다.

나주시는 공중 목욕장 무료 이용 대상자 확대 외에도 시민들이 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과 안전 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윤병대 나주시장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존중과 배려, 보은의 대상자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실질적인 혜택이 따르는 복지 시책 강화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화순 꽃강길 음악분수 여름철 매일 공연 진행

화순 꽃강길 음악분수 공연이 매일 진행 된다.

화순군은 여름을 맞아 '화순 꽃강길 음악분수' 공연 일정을 휴무일 없이 매일 운영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화순 꽃강길은 군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사랑받는 곳으로 평소에도 많은 사람이 찾는 지역 명소다.

특히 화순 꽃강길 음악분수는 꽃강의 시각·청각적 매력 포인트로 널리 알려져 핵심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화순군은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을 맞아 특정 요일과 주말, 공휴일에만 가동되던 꽃강길 음악분수 공연 일정을 매일 운영하는 여름철 맞춤형 방식으로 변경, 방문객 모두의 문화·여가 향유 욕구를 한층 만족시키기로 했다. 여름철 하계 기간 공연은 오후 8시에 시작되며 토요일은 2회 공연한다. 단, 기상 악화 시에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장마철에는 하천 수위 및 수질 상태에 따라 변경·운영되고 구체적인 일정은 화순군 음악분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



함평군,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모델 육성

취약계층 아동 정서 지원 업무 협약

함평군이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모델 육성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함평군은 아동 정서 회복과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농장과 아동복지시설 간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최근 함평군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나비전지 치유농장과 만덕불이 지역아동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은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모델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아동의 정서적 회복과 지역사회 공헌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모델 육성사업은

참여자 안전·편의시설 조성과 사회서비스 기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치유농업의 실용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원예 치유프로그램 제공과 지역 치유농업자와 협업을 통한 프로그램 효과 검증,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 등이다.

군은 자연과 함께하는 치유 체험이 아동의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문정모 함평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함평군을 대표하는 치유 농장 육성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서비스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치유농업의 사회적 가치를 더욱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격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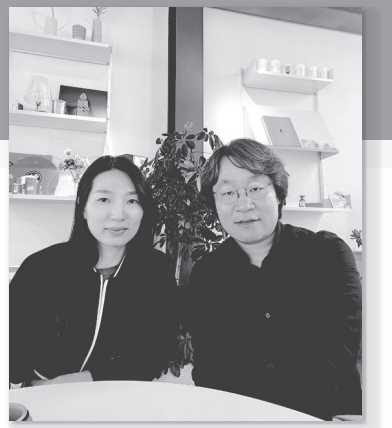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아느냐/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